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성을 위하여 목(牧)*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수레와 말을 내어 따르면서 목을 영송(迎送)하며, 고혈(膏血)을 다하여 목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태고 시절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목이 존재했는가? 백성들은 한가로이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판결할 수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있어 공평한 말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인에게 가서 판정을 받았고, 모든 이웃 사람들도 판정에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이라고 불렀다. 또한 여러 마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판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노인이 있어 현명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그를 추대하여 당정(黨正)이라고 불렀다. 역시 몇 개의 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어질고 덕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추대하여 주장이라고 불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 개 주의 주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국군(國君)이라 하고, 여러 국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아 방백(方伯)이라 하며, 사방의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삼아 황왕(皇王)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정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당정에게 올리고, 당정은 백성들의 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올렸다. 역시 주장은 이를 국군에게 올렸으며, 국군은 다시 황왕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그 법은 모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어느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자기의 자제와 종복들을 제후로 삼고, 제후는 자기 심복을 뽑아 주장을 삼으며, 주장 역시 자기 심복을 가려 당정·이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황제는 자기 욕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제후에게 내리고, 제후는 다시 자신의 욕망대로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내린다. 이와 같이 주장은 당정에게, 당정은 다시 이정에게 내리니, 그 법은 통치자를 존송(尊崇)하고 백성을 비하하며, 아랫사람에게는 각박하고 윗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되었다. 이렇듯 백성은 한결같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후와 같아져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거느린 것이 마치 국군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 또 그들은 넉넉히 다른 사람을 경복(慶福)할 만하고, 그들의 형률(刑律)과 위엄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 결국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에 빠져서 자신이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켜 찾아가 판결을 구하면 번거로우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굶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흘러서야 그친다. 날마다 거둬들인 돈꾸러미를 헤아려 낱알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고하여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여,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이르고서야 백성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어니와, 어찌 이것이 타당한 이치이겠는가?

* 목 :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자의 총칭.

39. (가)와 같이 묻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과 백성은 결국 평등한 인간일 뿐이므로
- ② 백성들의 목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하므로
- ③ 목과 백성의 본질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 ④ 목과 백성을 구별하는 의의를 알 수 없으므로
- ⑤ 현실 속의 목과 백성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40. (나)에 나타난 수령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 ② 환골탈태(換骨奪胎)
- ③ 자중지란(自中之亂)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41.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자신이 처한 시대 현실을 고뇌하고 있다.
- ② 기본적으로 다수의 백성을 신뢰하고 있다.
- ③ 태고의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 ④ 신분제적 질서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 ⑤ 통치자 선입과 법 제정 절차가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42. 이 글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 ① 민본주의 회복
- ② 배금주의 추방
- ③ 충효 사상 고취
- ④ 사회 기강 확립
- ⑤ 분배 정의 실현

43. 글쓴이가 백성을 보는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2 점]

① 천하의 공통된 원리는 통치자가 다른 사람을 사역(使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령(使令)과 노복은 관직에 있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유헤원(柳馨遠)

② 옛날에 법을 만드는 일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고 풍속을 선도하려는 뜻에서 비롯하였다. 형벌을 가하는 데는 공평하게 하고,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편견이 없었다.

— 우하영(禹夏永)

③ 인주(人主)가 백성을 존중하면 천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필부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백성이란 ‘임금의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수광(李睟光)

④ 한 나라의 일은 마땅히 온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도모해야 한다. 한 나라의 공론은 온 나라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의논이다.

— 최한기(崔漢綺)

⑤ 백성 개개의 힘은 지극히 작지만 그 백성의 도움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길밖에 없다.

— 이익(李瀼)

- 정답: 39.⑤ 40.① 41.④ 42.① 43.①

◆ 22년 11월 고1 16~21번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 꺾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覇)’라고 ㉢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패업(覇業)’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범죄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학집요』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앎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다.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로 나뉜다.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

[A] 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 내는 것이다.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혼군,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無道)’이므로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할 존재이다.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 역설한 것이다.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통치술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을 군주의 유형에 따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1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폐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군주가 법을 존중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 ④ 군주가 자신에게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권세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 ⑤ 군주가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부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8.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주는 앓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앓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 ② 군주는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
- ③ 군주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백성의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
- ⑤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19. (가)의 관점에서 [A]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정치적 분열을 막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폐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A]에서 군주가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것이므로 폐업으로 볼 수 있다.
- ③ [A]에서 군주가 자신의 총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폐업으로 볼 수 있다.
- ④ [A]에서 군주가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므로 폐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⑤ [A]에서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한 것은, 능력에 따라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한 것이므로 폐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 <보기>는 동서양 사상가들의 견해이다. <보기>와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 군주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군주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때 군주는 도덕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① 관중과 ㉠은 모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관중과 ㉡은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관중은 ㉢와 달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이 아니라고 보았군.
- ④ 율곡은 ㉢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군.
- ⑤ 율곡과 ㉢는 모두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군.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② ㉡: 지치고 쇠약해짐.
- ③ ㉢: 바로잡아 고침.
- ④ ㉣: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음.
- ⑤ ㉤: 자신의 뜻을 힘주어 말함.

◆ 10-9평 13~17번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 짝였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14.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집

—<보 기>—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증위도 고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16. 위 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이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 ㄹ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ㄹ	ㄴ	ㄱ, ㄷ
④	ㄱ, ㄹ	ㄴ	ㄷ
⑤	ㄱ, ㄹ	ㄷ	ㄴ

17.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질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 ② 질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질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질게 풍겨 온다.
-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질게 깔렸다.

◆ 08 MDEET 언어추론 32~34번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제가 책문을 내려 물었다.

삼대의 제왕이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표는 어디에 있는가?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왜 일어나는가? 사람의 성질과 수명의 실상을 보면, 혹은 어질고 혹은 비루하며, 혹은 장수하고 혹은 요절하니 그 이치는 무엇인가? 정사를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가?

동중서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지나간 사례로써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도리를 잃어 패망에 가깝게 될 때에는 하늘이 먼저 재해를 일으켜 꾸짖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면 또 괴이한 현상을 내보여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때야야 손상과 패망이 이르게 합니다. 하늘은 여진 마음으로 군주를 사랑하여 나라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크게 도리를 잃은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저들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니, 우리가 할 일이란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도를 실행하는 데 힘쓰면 덕은 날로 일어나고 공적이 크게 쌓일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으로 가는 길로서 인의예악(仁義禮樂)은 모두 그 도구가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치란과 흥망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제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서경』에서 “흰 물고기가 대왕의 배로 들어오고, 불이 일어 대왕의 지붕으로 깃들어 까마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서(祥瑞)를 보고 주공이 “보답이로다! 보답이로다!” 하였고, 공자는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방탕과 나태로 쇠퇴해진 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못하여 사악한 기운이 발생하고, 이것이 아래 쌓이니 위에는 원망과 증오가 생겨 상하가 조화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양이 뒤틀리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명(命)이란 하늘이 내린 명령이요, 성(性)이란 생명체의 본바탕이라고 신은 들었습니다. 수명의 장단, 성질의 어질과 비루함이 생기는 것은 도공이 그릇을 빚고 대장장이가 철기를 만들듯이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눕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순 임금께서 덕을 베풀자 백성들은 어질게 되고 장수했으며, 걸·주 임금이 폭정을 행하자 백성들은 비루해지고 요절했습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글을 살펴 왕도의 시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정(正)에 있었습니다. ‘춘정正月’이라 하여,

‘정’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고, ‘왕’은 ‘봄[春]’의 다음 자리에 있습니다. 봄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요, 한 해의 시작을 제정하는 것은 제왕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위로는 하늘이 행하는 바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신이 행하는 바를 바르게 함으로써 왕도의 시작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이 된 자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해야 합니다.

32. 무제의 질문에 대한 동중서의 답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악으로써 다스리고, 형벌을 남용하면 안 된다.
- ②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제왕이 천도를 따르지 않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나타난다.
- ③ 제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는 하늘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옛 책에 기록되어 있다.
- ④ 절후(節候)의 변화가 순조롭기를 바란다면 제왕은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을 본받아 정월을 제정하듯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 ⑤ 사람의 성질과 수명이 다른 이유는 하늘이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왕은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33. 동중서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사양지심이 없어지고 남을 해치며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
- ② 옛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훌연히 새것이 된다. 선왕의 예교(禮敎)는 시대의 용도에 따른 것이니, 시대가 지났어도 폐기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오히려 된다.
- ③ 사물이나 현상은 자신과 다른 것을 피하고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각기 서로 끌리어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다.
- ④ 자연계는 인간 세상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행한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 하여 겨울을 물리지 않으며, 땅은 사람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 하여 광야를 거두지 않는다.
- ⑤ 천지의 도는 작위(作爲)가 없으니 만물은 스스로 서로 다스리고 풍족해질 것이다. 천지는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짐승은 풀을 뜯고, 사람을 위해 짐승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는다.

34. 위 글의 맥락에서 ㉠을 이해할 때, 옳지 않는 것은?

- ① 세상 만물이 하늘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온 백성이 고루 제왕의 은덕을 입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제왕의 덕치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정치 운영에서 제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왕과 백성의 자질이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